

# 대기업의 최근 3년간 창업 지원 우수 사례

CSR 현황Ⅱ

안상아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

## I. 서론

90년대 이후 지속되어온 ‘고용 없는 성장’과 최근 10년째 63~64%대에 머무르고 있는 고용률은 기존 고용창출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주었으며, 심화되어가는 고령화·저출산 문제 역시 경제 역동성을 저해하고 있다. 2013년 6월, 정부가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 자료에 따르면, 고용창출 저조의 원인으로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 고용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 남성 가장의 장시간 근로에 의존하는 근로문화를 꼽고 있다.

여성의 경력단절, 청년의 고학력화, 베이비부머의 이른 퇴직 등 취업 애로요인이 구조화되어가는 가운데, 「고용률 70% 로드맵」이 제시하는 첫 번째 정책과제는 ‘창조경제<sup>1)</sup>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이 과제를 위해서는 정부와 대중, 고등학교·대학교, 출연연구기관, 대기업, 벤처·중소기업 간 시너지 창출이 필수적이다. 특히,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완화하고,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키며, 신산업·신시장을 개척하는 혁신 동력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1)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에서는 창조경제를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 가치로 두고 새로운 부가가치·일자리·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경제’, ‘국민의 창의성과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통해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경제’로 정의하고 있다.

〈표 1〉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주요 정책과제 중 창업 관련한 부분

단위과제	주요 내용	관련 법률
창업 활성화	•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방안 ('13.5.15. 발표)	조특법, 벤처법, 통상도산법
	• 청년 창업 봄 조성 및 1인 창조기업 창업 촉진	창업법
	• 창조 아이디어의 기술사업화 촉진 * 창업선도대학을 통한 청년창업가 양성, 교수·연구원의 휴·겸직 허용 확대 * 기술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창업법, 직업능력개발법 연구개발서비스진흥법 (제정)
[1-2] 신직업· 신산업 발굴·육성	• 새로운 직업 기반 마련 ('13년 1.1만개→'17년까지 500개 추가 발굴) • 4대 융합 新산업 육성방안 ('13.6월, 산업부 발표) • IT·SW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의 창조산업화 전략 ('13.6월, 산업부)	국가기술자격법

\*출처: 정부, 2013.6,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 자료

이에 본 고에서는 경제주체 중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2012~2014년 최근 3년 간 CSR 활동의 방편으로 펼쳐온 창업 지원 사례를 수혜자(청년, 퇴직자·중장년층, 사회취약계층, 벤처기업, 사회적기업)별로 소개하며 이를 통해 대기업들의 창업 지원 활성화 성과를 짚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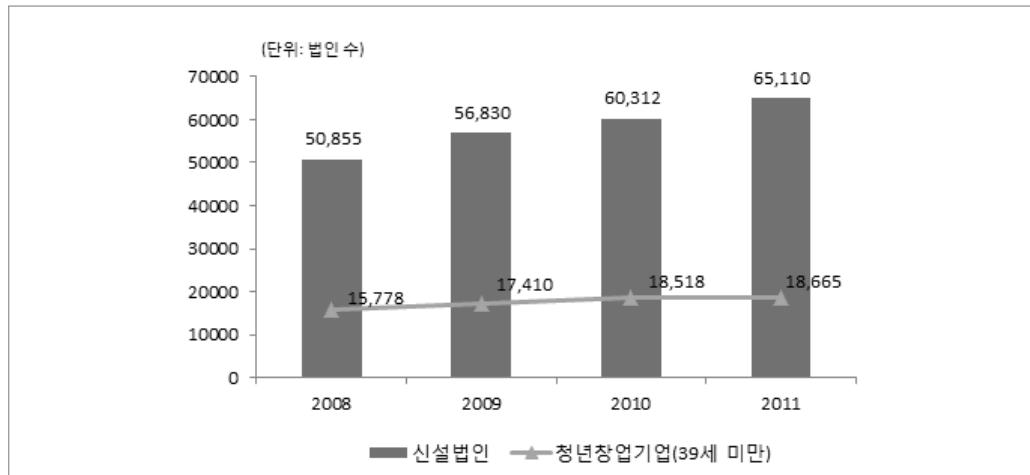
## II. 본론

### 가. 청년 창업 지원 사례

청년 창업이란 통상적으로 20~30대가 특정 아이디어, 아이템 또는 능력을 통해 창업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014년 7월,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청년창업특례보증 대상의 나이제한을 만 20~39세에서 만 17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창업초기펀드 운용기준을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으로 한정하는 관행을 폐지하였다. 이는 최근 모바일·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의 확장, 마이스터고 육성 등으로 창업에 나선 사회 초년생이 늘어난 현실과 기술의 고도화로 연구개발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년창업기업의 수는 2000년 대 초반, 벤처 봄과 함께 2008년 이후로도 점차 증가하여 왔지만, 2008~2011년 전체 신설법인 수 연평균 증가율(8.6%)과 비교했을 때 동 기간 39세 미만의 청년창업기업 연평균 증가율은 5.8%에 그치고 있다.

이에 일부 대기업들은 경영 전략적 측면에서 유망 스타트업(Start-up)을 발굴하거나, 사회공헌의 일환으로서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창업기업의 발전단계별 지원 현황을 구분해 볼 경우, 〈표 2〉와 같이 창업 장려 단계, 창업 초기 지원 단계, 기업 성장 지원 단계 순으로 나눌 수 있으며 편의상 이 순서에 따라 소개하고자 한다.

[그림 1] 전체 신설법인 수와 청년창업기업(39세 미만) 수 추이



\* 출처 : 중소기업청

〈표 2〉 창업 지원의 기업 발전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단계	창업 장려 단계		창업 초기 지원 단계	기업 성장 지원 단계
	창업 관련 교육	창업 아이디어 사업화 연계		
세부 지원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업교육</li> <li>멘토링</li> <li>세미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디션/공모전</li> <li>아이디어 현실화를 위한 영업 공간, 자금 등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업보육센터</li> <li>엑셀러레이터</li> <li>시드머니 지원</li> <li>멘토링, 노하우 전수</li> <li>마케팅, 양산 설비 지원</li> <li>네트워크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서비스</li> <li>창업 지원 펀드</li> </ul>
단계별 지원기업	미래에셋증권, 한화생명 등	CJ 그룹, 신세계백화점 등  삼성전자, 아산나눔재단(현대계열사), 포스코, KT 등	삼성SDS, SK플래닛 등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

### 1. 창업 장려·초기 지원 단계

창업 장려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창업 관련 교육과 창업 아이디어의 사업화 연계 지원으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 창업 교육, 멘토링, 세미나 등의 사례를 들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창업 오디션/공모전을 통한 사업화 지원,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창업 자금·

공간 지원이나 컨설팅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창업 초기 지원 단계는 예비 창업자나 창업을 갓 시작한 기업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노하우 전수나 자금지원을 통해 창업 기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한 것이다. 일례로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의 경우, 창업 초기기업을 일정기간 입주시켜 기술개발에 필요한 범용기기 및 작업장 제공, 기술 및 경영지도, 자금지원 등 창업에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는 데에 목적이 있다.

#### (1) 미래에셋그룹, '금융캠퍼스'

미래에셋그룹은 교육과학기술부와 2012년 7월 협약을 맺고, 매년 2회씩, 대학생을 대상으로 금융업 및 관련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창업교실 등으로 구성된 '금융캠퍼스'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중 'CEO와 함께하는 창업교실'은 박현주 회장, 계열사 사장들이 직접 멘토로 참여하여 강연한다.

#### (2) 한화생명, '씨커스(SEEKER:S)'

한화생명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으로 2013년부터 사단법인 씨즈와 함께 청년창업 지원사업인 '씨커스'를 운영하고 있다. 한화생명의 씨커스 사업은 김승연 회장의 사회공헌철학인 '함께 멀리'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청년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으로 시작되었다. 사회적기업 창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수혜자로 선정된 합격자는 선배 창업가의 노하우와 어려움을 공유하고 선배 창업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차례 걸쳐 사업계획을 수정하게 된다. 이후, 전문가의 검수 및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토대로 최종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씨앗기금을 지원받아 창업하게 된다.

#### (3) 신세계백화점,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신세계백화점은 2013년 10월, 남대문시장과 상생 발전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전통 시장을 살리면서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동반성장 모델의 하나로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남대문시장 내 빈 점포를 신진 디자이너들의 영업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무상 제공하는 프로젝트이다. 2014년 10월, 신세계백화점 본점 문화홀에서 실시된 '남대문 신진디자이너 패션쇼'에서는 신진 청년 디자이너 10명의 작품 100여점이 출품되었으며 '글로벌N패이콘'이라는 공동상표를 개발해 공동 마케팅을 후원함으로서 청년 디자이너들의 남대문시장 진출에 기여하였다.

#### (4) CJ 그룹, 'CJ 온리원 아이디어 페어'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CJ그룹은 'CJ2030 드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2년 3

월, 20~30대 청년 대상의 창업 오디션인 ‘CJ 온리원 아이디어 페어’를 개최하였다. 단순히 사업 아이템 아이디어만 공모하는 것이 아니라, 대국민 오디션 심사방식과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팀별로 행사장 부스를 마련하였다. 부스에는 시제품이나 미니어쳐를 갖추도록 하고, 그것의 작동 또는 구현을 위한 기계·설비장치나 테블릿 PC·TV 등 멀티미디어를 동원하여 실현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공모전의 본선에 오른 20개 팀에게는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멘토단의 지도하에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기회가 주어졌으며, 최종 우승팀에게는 창업지원금 1억원과 CJ그룹 차원의 아이템 사업화 지원 및 CJ그룹 계열사 취업 기회가 제공되었다.

#### (5) 삼성전자, ‘투모로우솔루션’공모전

삼성전자가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후원하는 ‘투모로우솔루션’공모전은 지원자들이 환경, 건강·의료, 교육, 지역사회 중 한 분야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안하도록 하여, 대상 수상 팀의 아이디어가 사회적기업과 같은 형태로 실제 사회에 확대·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2013년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된 2014 공모전에서는 지원자 총 4,097명이 1,502건의 아이디어 제안서를 제출하는 대형 공모전으로 성장하였다. 2013년의 경우 ‘정치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정치 오픈 플랫폼’, 2014년의 경우 ‘시각장애인 버스탑승 솔루션’등의 아이디어가 상금·실현지원금 지원과 삼성전자 임직원·전문가의 멘토링을 통해 현실화되었다.

#### (6) 아산나눔재단(범 현대 계열사),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아산나눔재단(명예이사장 정몽준)은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를 비롯한 11개 범 현대 계열사들이 출연하여 1977년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청년창업 활성화와 글로벌 리더 육성이라는 두 테마를 중심으로 각종 복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 중 201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정주영 창업경진대회’에서는 전국 대학(원)생 및 만 35세 이하의 일반인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공모받아 2차 예선 통과 9팀에게 창업 자금과 멘토링을 지원하여 실전 창업 기회가 주어진다. 창업자금은 2012년 4월, 1000억원 규모로 조성된 정주영 엔젤투자기금에서 마련되는데, 2013년 초의 경우, 대학생에게 무료출력서비스를 제공하는 애드투페이퍼(제1회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우수상 수상)에 3억원을 출자하였다.

## 2. 기업 성장 지원 단계

기업 성장 지원 단계에서의 지원 방식은 창업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서비스와 창업지원펀드를 통한 직접·간접 지분 투자로 나눌 수 있다. 두 방식 모두 아이디어·기술력 검증을 바탕으로 금융 지원을 받길 원하는 초기단계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

서 이 단계에서의 지원은 주로 금융업종의 기업들이 창업펀드를 조성하거나 저리대출을 통해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은행권 청년 창업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청년드림대출’이 있는데 이는 모든 시중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 다루지 않은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등 여타 시중은행들 역시 창업지원에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상품은 만 39세 이하면서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기업가가 대상이며 은행권 청년 창업재단<sup>2)</sup>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면 누구나 4년 동안 연 5.0% 고정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 (1) KB국민은행, ‘창조금융 패키지 상품’ 및 ‘창업 지원 펀드 조성’ 등

KB국민은행은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창조경제구현 정책과제 부응책의 일환으로 관련 금융상품을 대량 출시하였다. 현재 대표적인 창조금융 패키지 상품으로는 KB창조금융 예·적금이 있으며 그 외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대출상품 4종(KB기술창조기업 우대대출, 우수기술기업 TCB신용대출, 기술보증기금협약 TCB신용대출, 더드림 소호신용대출), KB소상공인 스토리 대출, KB예비창업자 기술보증부대출, KB기술창조기업 성장지원대출 등이 있다.

2014년 5월과 8월 각각 판매 개시된, KB창조금융 예·적금은 창조경제타운에 회원가입하거나, KB창조금융 적금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 KB창조금융 예금에 연 0.1%p의 우대이율을 적용하며, 만기이자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창의인재 육성과 청년창업 지원 등을 위한 기부금으로 출연한다. 또한 KB금융은 KB인베스트먼트를 통해 150억 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 및 500억 원 규모의 ‘KB 12-1 벤처펀드’ 등 총 650억 원의 벤처펀드를 운영 중(2013.04. 기준)에 있는데, 이에 더 나아가 ‘KB요즈마<sup>3)</sup> 창업지원 펀드’ 출범을 준비 중에 있다.

#### (2) 신한은행, ‘청년 창업지원 보증대출’ 및 ‘연구개발 우수기업대출’ 등

2013년 4월, 신한은행은 기준에 판매해온 ‘청년 창업지원 보증대출’ 상품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신규 취급 시 최대 연 0.5%p까지 금리를 추가 우대하고 총 500억 원까지 한도를 확대하였다. 또한 설립초기 금융지원 수혜가 어려운 신생기업의 자금 지원을

- 
- 2) 은행권 청년 창업재단은 청년 창업가 발굴 및 육성을 위해 2012년 5월, 시중은행들을 중심으로 20개 금융권 기관이 출연하여 설립되었으며 청년 창업가 보증 지원, 투자 지원, 창업 교육 센터 운영 등을 수행한다.
- 3) 요즈마 펀드의 원조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이스라엘의 대표 민관 합동 투자펀드로, 1993년 40억 달러 규모의 ‘fund of funds’ 방식으로 설립되어, 자국 벤처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와 첨단 기술 산업의 성장에 기여하였다. 2014년 9월, 이스라엘 요즈마그룹은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향후 3년간 500여 한국 벤처기업에 1조원 이상 투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위해 ‘신한 챌린저 신설법인 대출’의 지원 대상을 법인 설립 후 만 3년에서 만 5년 이내로 확대하였다. 이 밖에 2013년 ‘연구개발 우수기업대출’ 상품을 출시하여, 중소기업청 선정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최근 1년간 특허등록 1건 이상인 기업 등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중소기업 등은 총 5,000억원 한도 내에서 운전 및 시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3) 하나은행(하나금융지주), ‘청년창업·일자리 창출을 위한 온라인 사업자 상생지원’등

하나은행은 2014년 4월 초, 카페24를 운영하는 심플렉스 인터넷,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함께 ‘청년창업·일자리 창출을 위한 온라인 사업자 상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온라인 사업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온라인 사업자 전용 운영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결제 계좌 개설 시 3개월 동안 전자 금융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 (4) 우리은행, 창업지원 대출상품 및 교육·컨설팅 지원

우리은행은 2030청년창업대출, 청년창업특례보증, 우리청년드림대출, 우리청년전용 창업대출 등 총 4개의 창업지원 대출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2012년 총 400억 가량 규모의 청년전용창업대출을 지원했던 우리은행은 2013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의 협약을 바탕으로, 청년전용창업대출 규모를 총 800억 규모로 확장하였다. 동 상품은 현재도 판매 중이며, 대출 요건은 ‘신청일 현재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지식서비스업, 문화콘텐츠업,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인 기업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는 고객으로, 3년간 연 2.7%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대출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감면되며,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을 통해 세무·노무·경영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한 온·오프라인 교육 및 컨설팅, 현장코칭이 무료로 지원된다.

#### (5) 기업은행, 창업지원 대출상품

기업은행 역시 우리은행과 비슷하게 중진공,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함께 청년전용창업대출을 2012년 출시해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다. 기업은행과 중진공이 각각 200억원 씩 출자해 청년창업지원펀드를 조성하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특별대출연협약보증에 의해 발급된 전액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만 39세 이하로 지식서비스업, 문화콘텐츠업, 제조업에 종사하며 창업 3년 이내인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우리은행과 마찬가지로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그 밖에도 은행

권 청년창업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하는 ‘IBK청년드림대출’, ‘구조개선 및 중소벤처창업자금’, ‘IBK창업섬김대출’상품 등을 취급 중이다.

## 나. 퇴직자·중장년층 창업 지원 사례

아웃플레이스먼트(Outplacement), 이른바 퇴직자 전직·창업 지원 제도가 한국에 도입된 직접적 계기는 IMF 사태라 할 수 있다.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기업들이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퇴직자 상담과 창업·재취업 컨설팅 등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국내 아웃플레이스먼트 전문 컨설팅 업체로는 다국적 컨설팅 업체인 디비엠(DBM)·라이트매니지먼트·리핵트해리슨과 국내 기업인 제이엠커리어가 들 수 있는데, 그 활용도는 미·유럽 글로벌 기업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중장년층은 퇴직 후, 그 동안 쌓은 전문 분야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재취업하거나 프리랜서, 창업, 컨설턴트 등의 진로를 택하기도 하지만, 상당수는 식당, 편의점, 숙박업소, 임대업, 프랜차이즈 개업과 같이 진입장벽이 낮고 1인당 부가가치가 낮은 생계형 자영업 전선에 몰리는 실정이며, 이마저도 포화 상태에 이르러 소수만 사업을 영속할 뿐이다.

결국 창업을 원하는 중장년층이 생계형 서비스업 외에 자신의 축적된 전문성이나 네트워크를 십분 활용해 고부가가치산업에 재진출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사내 인사관리 시스템의 틀 속에서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아웃플레이스먼트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2000년대 중반부터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 퇴직이 본격화되고 있는 현실과,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의 사기와 애사심이 고취되는 등의 부수적인 효과를 생각해 볼 때 기업 자체적으로 아웃플레이스먼트 프로그램의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해볼만하다.

〈표 3〉 중장년층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의 수혜 대상별 분류

수혜 대상	자사 퇴직(예정)자	일반 중장년층
창업 지원기업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화재, 포스코, KT, 유한양행, 삼성증공업, 두산증공업, 롯데쇼핑,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강원랜드 등	CJ푸드빌, SK텔레콤, GS리테일 등

### 1. 자사 퇴직(예정)자 대상

#### (1) 삼성전기, ‘전직관리시스템(CMS)’

삼성전기는 2002년 경력개발센터(CDC)를 설치하여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다가, 2005년 말부터는 전직관리시스템(CMS)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퇴직(예정)자 대상의

경력 진단과 진로 상담을 비롯하여 창업, 재취업, 자격증 취득에 이르기까지 전직을 위한 종합적인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컨설팅사와의 계약 및 공조, 자체적인 구인회사 발굴, 중소기업청,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노사공동재취업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전직을 지원하고 있다.

#### (2) 삼성전자, '경력컨설팅센터'

삼성전자의 경우, 2011년 서울 서초동과 수원, 기흥, 구미에 설립한 '삼성전자 경력컨설팅센터'에서 재직·퇴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생애설계교육과 창업·재취업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임직원들이 지속적으로 경력을 개발, 관리할 수 있도록 취업과 창업 정보를 제공하고 자격증 취득 등의 역량 개발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퇴직 후 취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구인 기업과 연계해 취업을 주선하고,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컨설팅과 실질적인 행정 업무를 지원한다.

#### (3) 포스코, 'POSCO Green Life Plan(생애계획시스템)'

포스코는 정년퇴직 예정자 대상으로 재취업·창업 교육을 2002년부터 국내기업으로서 최초로 실시하였다. 포항과 광양 제철소에 설립된 그린 라이프 센터에 전문 컨설턴트와 행정 직원이 상주하며 개인별 카운셀링과 학습을 지원한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DBM Korea와 포스코 인재개발원이 공동 운영하다가, 지금은 포스코경영연구소에 합병된 포엠아이컨설팅(POMIC)을 통해 3개월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은 자기진단, 재취업·창업 전략을 짜는 '성공설계 워크샵', '부부동반 워크샵', '맞춤형 컨설팅', 'E-러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4) KT, 'KT Lifeplan'

KT는 2005년 10월부터 40세 이상 재직자와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KT Lifeplan'이라는 경력관리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CDC(Career Design Center) 상담 신청을 통해 재직자 대상으로 재무 컨설팅, 개인성향 진단, 커리어 코칭 세 분야의 생애 설계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3년 이내 퇴직한 자나 퇴직 예정자 대상으로는 다양한 창업·재취업 코칭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한 프랜차이즈와의 제휴를 통해 창업 시 가맹비용, 교육비용을 할인받거나 우선 입점 기회를 제공한다. KT Lifeplan 홈페이지에서는 구인·구직 정보 열람, 업종별 창업자 정보 및 성공사례 공유, 각종 온라인 강좌, 동호회 운영, CDC(Career Design Center) 상담 신청 등이 지속적으로 지원된다. 이밖에 KT의 정규직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원, KT 재직 사원을 회원으로 하는 KT동우회에서는 공인증

개사, 주택관리사,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공경매사 등 16개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의 교육비를 일부 지원한다.

〈표 4〉 KT 창업 컨설팅 프로세스

사업 준비 단계	사업 구축 단계	사후 관리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자 환경 분석</li> <li>- 아이템 및 입지 분석</li> <li>- 사업타당성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포 구축</li> <li>- 개업 준비 및 개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후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자 적성검사</li> <li>• 내, 외부 창업 환경 분석</li> <li>• 아이템 선정</li> <li>• 사업계획서 작성</li> <li>• 현장체험 및 입지 선정</li> <li>• 사업타당성 분석</li> <li>• 자영업 또는 체인점 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포 계약</li> <li>• 인테리어</li> <li>• 점포 디스플레이</li> <li>• 구매 활동</li> <li>• 인, 허가 등록</li> <li>• 개업 예행 연습</li> <li>• 개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스템 안정화 작업</li> <li>• 경영효율화 대안 마련</li> <li>• 창업자 네트워킹</li> <li>• 창업 동아리 운영을 통한 공동브랜드 창업 지원 (프랜차이즈 시스템)</li> </ul>

#### (5) 삼성화재, ‘경력컨설팅센터(CCC, Career Consulting Center)’

삼성화재의 경우 삼성 금융사 통합 경력컨설팅센터(CCC)를 통해 업 특성에 맞는 퇴직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희망퇴직 신청자와 전문직 전환자들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인력의 진단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창업지원이나 교육 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만 50세 이상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2012년 5월부터 ‘Beautiful Aging’ 교육을 실시하여, 직급별 과정과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임직원들이 인생의 후반기 계획을 착실히 준비하여 안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 (6) 기타

이 밖에 삼성중공업, 유한양행, 두산중공업, 롯데쇼핑 또한 미디어나 홈페이지, 지속 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통해 퇴직자 재취업·창업을 위한 제반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개인별 선택적 퇴직 프로그램(New Life Start 과정)을 통해 사이버교육, 독서, 창업스쿨, 평생교육원, 전문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한국전력 또한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변화관리, 자산관리, 창업·취업 등 7개 프로그램 26개 과목에 대해, On-Line과 Off-Line 병행 교육을 실시한다. 강원랜드 역시, 퇴직(예정)자의 창업 및 전직을 도울 수 있도록 은퇴 이후에도 계속 일할 의사가 있는 은퇴 예정자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컨설팅 기관의 위탁교육으로 은퇴생활 준비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며, 일부는 요리사 등 전문직으로서 재고용한다.

## 2. 일반 중장년층 대상

### (1) CJ푸드빌, 'CJ푸드빌 상생아카데미'

2013년 11월 설립된 CJ푸드빌 상생아카데미는 CJ푸드빌이 창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층(50대 이상) 은퇴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협력해 설립한 외식창업 전문 교육기관이다.

2014년 말, 7기까지 진행하는 동안 총 320여명의 수료자를 양성해 그 중 100여명이 창업 혹은 재취업에 성공하였다. 매 기마다 카페I/카페II/베이커리/파스타(브런치) 전문점 4개 창업과정을 운영하는데 각 과정별로 12명씩 선발된다. 시설은 경력 진단 및 생애 재설계 멘토링(5일/30시간), 창업기본 역량교육(8일/48시간)을 위한 '이론 교육장'과 매장환경 시뮬레이션과 실습 교육(22일/132시간)을 위한 '실습실'로 구성되어있고, 총 7주(35일)/210시간으로 이뤄진 이 교육의 참가비용과 중식대는 전액 국비지원으로 운영된다. CJ 직원과 무관하게 중장년층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며, 단순히 CJ푸드빌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 (2) SK텔레콤, '브라보! 리스트트(BRAVO! Restart)'

SK텔레콤은 기업 비전인 'Vision 2020: Partner for New Possibilities'를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복동행'을 선포하며, 2012년부터 '가능성의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ICT 창업지원포털 사이트인 '행복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은퇴하는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 '브라보! 리스트트(BRAVO! Restart)'프로젝트를 운영한다.

또한 ICT기술, ICT 융합을 통한 기술 및 제조 지식서비스 분야에 진출하려는 예비 창업가(팀)·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가(팀)를 대상(만 45세 이상 인력이 포함되어야 함)으로, 'BRAVO! Restart 창업지원 공모전'을 운영한다. 최종 선정된 팀에게는 초기 창업 지원금 2천만원 지원부터, 전문가 멘토링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와 기술 개발 지원, 기술 개발자금 차등 지급(팀당 최대 1억원, 수익 배분 방식으로 매출 발생 시 상환조건), 10개월간 창업 입주공간 및 인큐베이팅 제공, 제품/서비스의 판로개척 및 마케팅/홍보 지원, SK텔레콤과 공동개발 및 투자 진행, 창업가 Care Program 지원(창업심리상담 등)까지 지원된다. 2013년 3월, 1기 수상 기업 중 운동기구 스마트짐보드를 출시한 허브앤팍크, 글로벌 큐레이션 서비스와 매거진 공유 서비스(피키닛)를 제공하는 베츠비의 경우 연 1억 원 이상의 매출을 창출하고 있다.

### (3) GS리테일, '제대군인 편의점(GS25) 창업지원'

GS리테일은 2012년 5월 말, 육군 인사사령부와 전역 군인 창업지원에 관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육군에서 10년 이상 복무한 전역군인들 중에서 GS25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고 육군본부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들에게 1~2주간의 점포 체험, 맞춤식 사업설명회 등 보다 세밀한 전역자들의 창업을 지원하였다.

## 다. 사회취약계층 창업 지원 사례

취약계층의 정의는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여러 접근 방법이 있겠지만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취약계층을 아래 〈표 8〉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경제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자립 능력을 제고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자활에 초점을 둔 창업지원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기업 중에서는 에스원, 삼성생명 등이 각각 교정 시설 청소년, 여성가장의 자립을 창업 지원을 통해 장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간생보호 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 (1) 에스원, '카페 원(One)'

지난 2005년부터 소년원 등 교정시설 청소년 100여명에게 희망장학금을 전달해 온 에스원은 2013년 10월, 에스원 수원사옥 1층에 '카페 원(One)'을 개소하였다. 비영리 사회

적 협동조합형태인 이 카페는 소년원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퇴원생들이 전문 바리스타를 돋는 식으로 운영되며, 이들은 창업 인큐베이팅 과정에 참여하면서 추후 새로운 매장 창업 시, 운영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다.

### (2) 삼성생명, '사람사랑 Dream Shop'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의 후원으로 2006년부터 진행되어 온 '사람사랑 Dream Shop' 사업은 창업자금을 포함한 창업 준비에서부터 점포세팅, 창업 후 경영지도까지 제공하는 여성가장 자립지원 사업이다. 서류심사, 현장실사, 직무능력평가 등을 통과한 여성 가장에게 1인당 2,000만원이 지원되며 2013.08. 기준 23개 업체가 약 4억 4천만 원을 지원받았다.

## 라. 벤처기업 창업 지원 사례

전 세계적으로 ICT융합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을 위한 대기업들의 벤처기업 생태계 육성이 눈에 띄게 활발해지고 있다. 2013년 5월, 기획재정부가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일환으로 벤처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하면서 '창업→성장→회수→재투자·재도전'과정이 선순환하는 벤처생태계 구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도 마련되고 있는데, 일례로 대기업과 벤처 1세대가 초기 벤처기업에 투자한 후에 회수한 자금을 다시 벤처기업 또는 창업에 재투자하는데 있어, 양도소득세를 과세 이연하고 엔젤투자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혜택이 있다. 또한, 대기업이 벤처기업이나 기술혁신형 기업(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용이 5%가 넘는 기업)에 투자해 대주주가 될 경우, 피인수 기업이 대기업의 계열사로 편입되는 것을 3년간 늦춰주는 제도도 신설되었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몇몇 대기업들은 초기 벤처기업을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시스템인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거나 벤처기업지원 펀드 결성 시 출자를 통해 벤처기업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표 6〉 벤처기업 창업 지원 방식별 분류

방식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운영	벤처펀드 출자
운영기업	대기업	대기업 및 1세대 벤처기업
운영 기업	아산나눔재단(현대 계열사), 삼성SDS, KT, 포스코그룹 등	두산그룹, 코오롱, 네오위즈, 다우기술, 네이버 등
세부 지원방식	창업 공간 제공, 노하우 전수, 네트워크 구축, 심화 멘토링, 자금 지원	자금 출자, 마케팅/판매 노하우 전수

## 1.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 프로그램

최근 국내 창업 활성화 정책에 따라 창업에 필요한 자원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창업 지원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범 현대그룹을 비롯하여 포스코, KT 등도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거나 간접적인 투자를 통해 벤처기업 육성에 힘쓰고 있다. 액셀러레이터는 초기 창업자를 선발하여 멘토링, 네트워킹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해 단기간 내에 벤처기업을 보육하는 기관 또는 프로그램을 지칭한다.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가 물적 지원인 시설 및 공간의 제공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액셀러레이터는 성공한 벤처 1세대 또는 대기업이 축적된 노하우-네트워크-자산의 활용을 통한 전문성을 지원한다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액셀러레이터 형식의 지원체계는 2000년대 중반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생겨났으며 Dropbox, Airbnb 등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킨 Y-combinator가 대표적인 예이다. 최근 여러 글로벌 대기업에서는 대형자금이 들어가는 기업 벤처 캐피털(Corporate VC)을 운영하기 보다는 비교적 적은 비용이 소요되는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추세이다. 현재, Microsoft, Cisco, Target, Coca-Cola, Nike 등의 수많은 기업이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민간부문에 의해 추진된 액셀러레이터는 아직 활성화 초기 단계이며 벤처 1세대, 대기업 주도로 약 20여개 업체가 운영 중에 있다.

### (1) 아산나눔재단(범 현대 계열사), '정주영 엔젤투자기금' 및 '마루180(창업지원센터)'

앞서 말한 바 있듯,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KCC, 현대해상, 현대백화점, 현대산업개발 등이 출자하여 설립된 아산나눔재단은 IT 융·복합, 농업벤처, 스마트 제조업에 속하는 청년 벤처 기업에 벤처캐피털·엔젤투자자와 함께 투자하는 동시에, 멘토링 제공을 통해 엑셀러레이터로서도 기능한다. 2013년 첫 사업으로 엑셀러레이터 '스파크랩(SparkLabs)'에 총 10억원의 투자를 진행하였으며, 2014년 4월에는 20여개 스타트업,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가 상주해있는 '마루180(MARU180)'을 개관하였다. 마루180 입주사에 대해서는 회계·세무·법무·특허·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한 멘토링, 지속적인 강연과 네트워킹 행사 참여, 500만 원 상당의 기업 홍보행사 기회 등을 제공하고 있다.

### (2) 포스코그룹, '포스코 벤처파트너스'

포스코는 2011년부터 매년 '포스코 벤처 파트너스(POSCO Venture Partners)'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벤처기업들에게 직접 투자하거나 외부투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다. 우선 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1차 선발된 벤처기업 대표들이 조별 심화 토론, 멘토링, 아이디어 발표 과정으로 이어지는 아이디어 육성캠프를 거쳐 육성

대상이 최종 선발된다. 그 후 10주간의 육성 과정을 통해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 멤버십 프로그램에 합류하게 되고 심화 멘토링을 거쳐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기회를 얻는다. 심화 멘토링은 일반적인 창업 교육에 장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5명의 전담 멘토와 분야별 전문가들이 단기 멘토로 투입되어 마케팅, 재무, 회계, 기술, 특허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영역 전반을 재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해주는 과정이다. 포스코를 비롯한 여러 외부 투자자들이 이 행사에 참석해 벤처기업에 투자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포스코는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한 벤처기업들의 판로 확대와 2차 투자자 유치를 도와주고, 포스코 그룹 계열사와의 사업 연계방안을 찾아주는 등 사후관리에도 적극적이다.

〈표 7〉 포스코그룹의 벤처기업 엔젤 투자 및 사후관리

구분	Level1	Level2	Level3	Level4
정의	• 아이디어 구체화 단계	• 창업 원료 • 기술 개발 단계	• 시제품 원료 • 시장 개발 단계	• 양산 및 마케팅 단계
자금 소요	• 법인설립 자본금 • 인력, 공간 확보 등	• 기술개발비 • 시제품 개발장비, 재료비	• 소규모 제품 제작비용 • 초기마케팅, 홍보비	• 양산설비 투자비 • 마케팅 채널(전시회 등) 구축

### (3) KT, '에코노베이션 아키텍트'

KT에서는 2010년부터 역량있는 우수 모바일 앱 개발 스타트업을 육성 및 지원하는 '에코노베이션 아키텍트' 프로그램을 매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앱 개발 인프라를 비롯해, 비즈니스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앱 마케팅 지원, 투자 기회 제공, 개발자 간 네트워킹 등을 제공한다. 우수한 팀에게는 아키텍트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에코노베이션 센터 공간 지원, 맞춤형 멘토링과 함께 최대 1천만원의 사업화 지원금을 제공한다.

이 밖에 삼성SDS(sGen), SK플래닛(상생혁신센터) 등에서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삼성 SDS의 sGen은 아이디어 및 스타트업(초기벤처) 기업을 발굴,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sGen 프로그램은 독립적인 사무공간과 IT(정보기술)인프라, 영업·마케팅·기술·UX 등 분야별 멘토링, 법률자문 등 창업에 필요한 부분을 무상제공하며 기업운영에 필요한 초기자금도 함께 지원한다. 또한, 일반 벤처캐피탈과 달리 해당 사업분야의 사내전문가를 연계, 사업기회까지 제공하는 등 실제 창업에 필요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전담 지원한다.

## 2. 벤처펀드 출자를 통한 자금·컨설팅 지원

최근 일부 대기업 및 벤처 1세대는 정부 주도의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펀드’에 출자함으로써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2013년 8월, 정부와 연기금을 비롯해, 대기업·벤처기업 등 민간 부문과의 공동출자로 출범한 미래창조펀드를 예로 들 수 있다. 미래창조펀드는 정부 출자액 2,000억원에 대기업 및 벤처 1세대의 지원까지 총 6,000억 규모로 조성되었다. 벤처투자조합으로 운영되며, 보통주·우선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형태로 투자되는데 IT·모바일·헬스케어·의료기기·M&A를 통한 업종 융복합 분야를 중심으로 창업 3년 이내 초기단계 기업에 2,000억원, 성장·후기단계 기업에 4,000억원이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중 네오위즈, 다우기술, 네이버 등 벤처 1세대는 2,000억원 중 1,325억원 규모의 ‘새싹기업 키우기 펀드’를 조성하여 후발 벤처기업에게 마케팅, 판매 노하우를 전수하며, 나머지 4,000억원을 출자한 두산, 코오롱 등 대기업 출자자는 투자 대상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한다. 계정분리 방식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총괄 운용기관인 한국벤처투자가 2013년 9월, 창업초기와 성장기 두 개 부문에 대해 총 19개 운용사(업무집행조합원)를 선정하였다.

〈표 8〉 미래창조펀드 운용방안

주요 출자자	국내 대기업	선도 벤처기업
출자 기업	두산, 코오롱	네오위즈, 다우기술, 네이버 등
출자액	4,000억원 출자	2,000억원 출자
대상	성장·후기단계 기업	창업 3년 내 기업
육성방안	마케팅 노하우 전수, 해외시장 판로개척	벤처 1세대 경험을 바탕으로 한 멘토링

## 마.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사례

대기업의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 방식은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기업-NGO-정부]로 연계되는 다자간 협력모델을 통해 기업이 비영리단체를 지원하여 성장시킨 뒤,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시키는 경우이다. 이러한 예로는 현대기아차가 (사)노인과 복지와 파트너십을 맺어 설립한 ‘안심생활’, 교보생명보험의 지원을 받아 비영리단체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한 다솜이재단 등이 있다. 둘째는 대기업이 재단을 설립하여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고 지원하는 형태로 SK그룹의 행복나눔재단을 예로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대기업이 자본을 100% 출자하여 영리기업형으로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는 형태로서, 일례로 포스코의 포스에코하우징 등이 있다.

〈표 9〉 대기업의 사회적기업 지원 방식과 대표 사례<sup>1</sup>

	방식	대표 사례
설립 지원	1 비영리 중개기구와 파트너십을 맺고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쳐 비영리조직형태의 사회적 기업을 설립	현대기아차의 (사)노인과복지가 파트너십을 맺어 설립한 '인심생활'
	2 재단을 통한 사회적기업 설립/전환	SK행복나눔재단의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등
	3 직접 사회적기업을 설립	포스코의 '포스에코하우징'
구매 및 인프라 지원	1 비영리 중개기구와 파트너십을 맺고 인큐베이팅 기간을 거쳐 영리회사를 설립	SK에너지와 열매나눔재단이 공동투자해 '(주)메자닌아이팩' 설립
	2 전/현직 임직원이 프로보노로 활동	SK프로보노, POSCO프로보노
	3 사회적기업가 양성을 지원	삼성의 SCS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SK그룹의 KAIST 사회적기업가 MBA
	4 Grant형식으로 초기사업비 지원	하이원리조트,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 시설 설비투자금 등 지원
	5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별도 조성	SK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6 판로 지원	현대홈쇼핑, G마켓의 사회적기업 판로확대 지원
	7 기타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장기 미임대 상가 저가공급

<sup>1</sup>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 대기업의 지원 현황", 2012.9, 기업지배구조 리뷰, 통권 제64호를 참조 바랍니다.

### (1) SK그룹, '행복나눔재단'의 사회적기업 사업

SK그룹은 2006년 사회공헌 전문재단인 행복나눔재단을 설립하여 2013년 말, 누적 기준으로 총 16개의 사회적기업 모델을 개발하고 1,000여명의 고용을 창출하였다. 지자체, 교육청, 정부 부처 등과의 파트너십을 토대로 하는 Social Partners Model 방식으로, 행복한학교, 행복한도서관, 행복한뉴라이프 등의 사회적기업을 세워 운영 중이다. 또한 SK그룹 관계사 고유 역량을 활용한 SK Biz R&C(복구 및 분류) 연계 Model을 통해 행복나래, 행복ICT, 행복한농원 등과 같은 사회적기업을 설립하였다.

또한 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세상 사회적기업 콘테스트', '적정기술 사회적기업 페스티벌'을 매년 개최하여, 컨설팅·마케팅·홍보 지원 등 사회적기업 설립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기업가 양성을 위해 세계 최초로 KAIST와 공동 개설한 '사회적기업가MBA'과정은 올해 2월 1기 졸업생 20명을 배출하였다. KAIST 내 설치된 'SK사회적기업가센터'에서는 이들이 사회적기업가로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창업 인큐베이팅, 커리큘럼 개발, 학술 연구 활동 등을 지원한다.

〈표 10〉 SK그룹의 사회적기업 지원

방식	사례
SK 사회적기업 모델 개발	1 Social Partners Model : 행복한학교(서울, 부산, 대구, 울산), 행복한도서관, 행복한뉴라이프, 대구행복한미래재단, 행복전통마을, 행복F&C,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
	2 SK R&C Model : 행복나래, 행복ICT, 행복한농원, 행복한녹색재생, 행복한웹앤미디어, 행복한에코폰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육성·투자	세상 사회적기업 콘테스트, 적정기술 사회적기업 페스티벌, 세상 인큐베이팅 (세상 워크샵, 멘토링, IR컨설팅), 임팩트투자, 사회적기업 온라인 플랫폼 '세상'
사회적기업가 양성	KAIST 사회적기업가MBA

### (2) 효성, 'UP-CYCLING 소셜 비즈니스 성장지원사업'

효성은 2012년 '함께 일하는 재단'과의 제휴를 바탕으로, 미혼모·자폐아를 위한 우수 청년 사회적기업을 선정하였으며, 대상 수상기업에게 창업 지원금과 월 1회 맞춤형 컨설팅, 경영진단을 제공하였다. 또한 컨설팅 제공 과정을 '사회적기업 경영 솔루션 매뉴얼'로 제작하여 차기 사회적기업들이 대상 수상기업의 경영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3년 10월에는 업사이클링(Up-Cycling, 재활용품에 디자인 또는 활용도를 더해 그 가치를 높인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새로운 테마로 정하여, 동 분야 우수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 최대 3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다.

### (3) 한국전력, '협동조합형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한국전력은 2012년부터 매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창업지원을 시행해 왔으며, 특히 2013년부터는 공공기관 최초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최초로 협동조합형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선정된 협동조합형 사회적기업에는 5천만원이 무상지원되며, 추후 성장을 위해 2억 5천만원이 연 2%의 저리로 대부 지원된다. 또한, 추후 성장지원금을 성실하게 상환한 조합의 경우, 사후 별도 심사를 통해 이자비용을 환급해 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선정된 사업에는 해당 사업이 정착할 때까지 교육 및 사업자원 컨설팅이 지속적으로 후원된다.

### (4) 대우증권, 'Jump Up 프로젝트'와 '전국 대학(원)생 사회적기업 논문경진대회'

대우증권은 청년창업 활성화와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사회적기업경기재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2012년부터 'Jump Up 프로젝트' 지원 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창업 후 경영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청년창업기업 가운데 서류 전형을 통해 10개의 성장성 있는 기업을 선별하여 마케팅, 기술개발, 디자인, 기타로 구

분해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억 1000만원까지의 ‘인센티브 성장기금’을 지원한다. 2012년의 경우, 대우증권이 지원한 10개 사회적 기업 중 5개 기업(문화공작소 세움, 월메이드 등)이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얻은 바 있다.

또한 2013년부터 매년 ‘전국 대학(원)생 사회적기업 논문경진대회’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공동 주최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실증연구 및 사례 분석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 (5) LG전자·LG화학, ‘녹색성장분야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2011~2013)’과 ‘2014 LG Social Fund’(2014~)

LG전자·LG화학은 사회연대은행과 함께 2011~2013년 3년간, 녹색성장(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화, 재활용 및 폐기물, 친환경 푸드 및 용품, IT기반 녹색성장 등) 분야 예비 사회적기업 50사를 지원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LG전자·LG전자 노동조합·LG화학 주최, 고용노동부·환경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후원으로 운영되어, 각 주체의 전문성을 살린 국내 첫 ‘다자간 협력모델’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20억원씩 3년간 총 60억원의 자금을 구성하여, 사업자 당 3,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를 무상 지원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인증 획득과 같은 성공 모델은 별도 선정하여 무이자 자금 융자, 원금 20% 인센티브 제공 등까지 지원하였다.

‘2014 LG Social Fund’사업은 녹색성장 분야에 치우쳤던 과거와 달리, ‘IT, 적정기술, 국제개발협력 및 글로벌 사업, 신재생에너지, (주택)에너지효율화, 재활용 및 폐기물, 신소재’등 친환경 사업으로 분야를 확장하여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소셜벤처 등 육성을 위해, 경제조직의 성장단계에 따라 무이자 대출지원과 무상지원으로 구분해 사업자금 및 교육/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법인 설립 3년 이상이거나 연 매출 4억 이상인 성숙기의 사회적 경제조직에는 최대 1억 원을 1년 거치, 36개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무이자 대출지원하며, 법인 설립 3년 미만, 연 매출 4억 미만인 조직에는 최대 5천만 원까지 무상지원한다.

#### (6) 현대자동차그룹, ‘H-온드림 오디션’

현대자동차그룹은 2012년부터 매년 청년 및 소외계층의 사회적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H-온드림 오디션’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정몽구 재단,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시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사회적기업가를 꿈꾸지만 종잣돈이 없는 예비 청년 사업가를 위해 경영컨설팅, 창업교육 및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기존의 단기적인 재정지원에 그친 창업 프로그램과 달리, 선배 사회적기업가들의 멘토링, 시장진입에 필요한 역량 전수, 책임 창업이 가능한 후속 지원 프로그램까지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 III. 결론 및 시사점

이상 대기업의 청년, 퇴직자·중장년층, 사회취약계층, 벤처기업, 사회적기업 대상 창업 지원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렇듯 대기업들이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기조에 부응하여 창업 봄을 조성에 기여하는 것은 분명 장려할 만한 일이겠으나 창업 환경의 실상이 현재 어떠하며, 수혜 기업들이 실제 고용 창출 효과를 일으킬만한 강소기업, 그 이상으로 성장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2014년 3월 기준, 청년 실업률(15~29세)은 9.9%로 전체 실업률의 2배가 훨씬 넘으며 2013년 말 기준, 청년층 고용률은 30%대로 하락한 반면 60세 이상 노령층 고용률은 전년보다 0.9%p 오른 38.4%를 기록하였다. 기업의 신규 채용은 줄어들고 세대 간 고용률 격차는 커진 것이다. 이렇게 취업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청년 창업 봄이 조성될 경우, 청년들은 각종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뚜렷한 목적 없이 눈을 돌릴 수 있다. 그럴 경우, 자금력·전문성·네트워크 면에서 덜 성숙하기 마련인 청년들이 짧은 날의 치기로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창업 실패 후 취업할 때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하게 된다. 실제, 경영난으로 인한 청년 기업의 휴·폐업 수와 청년 신용 불량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이 대다수의 암울한 결말을 암시한다.

따라서 청년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현상이나, 사업의 영속성을 담보하지 못할 경우 시장 경제에 있어 새로운 불안 요인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지원 프로그램이 신규 창업이나 창업한지 3년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초기 유동성 충격을 극복하고 성장 동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기업은 신규 수혜 대상을 늘리는데 주력하고, 기업 이미지 제고나 마케팅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발전가능성 높은 청년창업기업이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 성장성·영속성에 중점을 두는 편이 바람직하다.

퇴직자·중장년층의 창업 전망 역시 그리 밝지 못하다. 2010년대 이후,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노후준비와 자녀부양의 부담으로 경제 활동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재취업이 어려운 50세 이상 대다수가 음식점업·서비스업·소매업 등 진입장벽이 낮은 자영업 위주로만 몰리고 있다. 국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2011년 말, 30.3%으로 OECD 평균(16.1%)의 2배 가까울 정도로 자영업 쏠림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자영업자 비중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sup>4)</sup>하는데, 베이비부머로 한정할 경우 31.9%에 이른다. 소상공인진흥원이 2007~2009년 내 창업 교육

4) 2012년 말 기준, 자영업자의 연령별 비중은 30세 미만(4.9%)→30대(14.8%)→40대(26.4%)→50대(32.0%)→60세 이상(42.2%) 순이다.(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 2013.6.21,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본 자영업자 가구의 현황 및 특징”)

을 받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창업 예정시기를 3개월 이내로 잡은 예비창업자 비중이 57.0%, 창업투자규모를 5천만원 이하로 잡은 예비창업자 비중이 46.7%에 달했다. 이렇듯 소자본 투자를 통한 신속한 창업에의 수요가 많을진대, (예비)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의 창업 지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시중은행의 대출 상품 일색이라 대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밖에 없다. 담보·보증위주의 대출 관행 속에서 대출 금리 우대를 골격으로 하는 창업 지원이 계속될 경우, 가계부채의 증대와 저부가가치 기업의 과잉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이 중장년층의 경력·전문성을 끌어내어 기술·지식서비스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형 자영업 분야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라면 그들이 과연 레드오션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수익을 거둘 수 있는지를 스스로 자문토록 해야 하며,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끝으로, 전 세계적으로 ICT융합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을 위한 대기업들의 벤처 생태계 육성이 눈에 띄게 활발해지고 있다. 자동차업만 해도 금융·리스업, 유지·정비업, 보험업, 중고차유통업 등과 연계되는 등 제조업(제품)의 서비스화(Servitization)가 진행되고 있으며, 3D프린터의 약진에서 두드러지듯 제조업의 디지털화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차세대 제조업은 기존 생산 설비와 ICT 인프라가 결합해 서비스화·디지털화된 대량 맞춤형(Mass Customization) 제조업이 될 것이다. 따라서 IT나 통신업종의 대기업 뿐 아니라 제조업종의 대기업들도 스타트업 발굴을 통한 ICT 융합에서 성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부성·일회성이 아닌 선순환적인 원-원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